

百濟 混築基壇의 研究

조 원 창

(기호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겸임교수)

주제어 : 혼축기단, 와적, 전적, 석축, 웅진, 사비

1. 서론

기단은 기단토의 止沙施設으로써 건물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¹⁾. 재료뿐만 아니라 구조²⁾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國籍이나 시기를 편년하는 데 있어 좋은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와 달리 사원이나 왕궁지, 혹은 특수 건물지 등의 瓦建物址에서 다양한 기단 형식이 찾아져 뛰어난 기단건축 문화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기단은 재료상으로 볼 때 석재가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석재로 조성된 石築基壇³⁾은 다른 재료의 기단과 비교해 볼 때 형식도 다

양하고 그 수요 또한 통시대적으로 가장 많다. 이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하지만 기단의 재료를 석재 만이 아닌 기와나 塼(벽돌) 등으로 확대시켜 보면 백제의 기단건축 문화는 삼국 중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축조양상을 보여준다.

기단은 한 건물지에서 하나의 재료로만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재료가 混築되기도 한다⁴⁾. 이럴 경우 재료에 따른 구역 설정이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기단 양식에 따라 재료상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백제의 混築基壇은 그 동안의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해 볼 때 熊津期에서 그 시초를 살필 수 있다⁵⁾. 이러한 형식의 기단은 7세기대 이후 백제 멸망기까지 부여를 중심으로 한 익

1)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인, 1988.

2) 백제 瓦建物址의 기단은 외견상의 층수에 따라 單層基壇 혹은 二重基壇이라 부르고 있으며, 석축기단의 경우도 지대석, 면석, 감석을 갖춘 기단을 架構基壇 등으로 별칭하고 있다.

3) 필자는 석축기단을 석재의 治石 정도 및 쌓는 방법에 따라 활석기단과 치석기단으로 大分類한 바 있고 이는 다시 小分類하여 割石亂層基壇, 割石正層基壇, 治石亂層基壇, 治石正層基壇, 架構基壇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조원창, 백제 건축기술의 대일전파, 서경, 2004).

4) 필자는 이처럼 한 건물지의 기단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재료, 즉 석재, 기와, 전, 흙 등이 상호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단을 “混築基壇”이라 부르려 한다.

5) 이는 한성기의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므로 향후 유적의 증가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산, 보령 등 백제의 고토에서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특히 泗泚期에 나타나는 石築과 瓦積基壇의 결합은 그 동안 고구려나 고신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백제만의 독특한 混築基壇으로써 기능성뿐만 아니라 폐기와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와적기단은 그 동안 삼국 중 백제에서 만 확인되었다. 그리고 塼으로 축조된 塼積基壇의 사례도 백제의 경우가 유일하다⁶⁾. 특히 와적기단은 중국에서도 발견 예가 없다는 점에서 백제의 독창적인 기단 건축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와적기단은 그 동안의 조사 예로 보아 대부분 石築(割石 重層) 혹은 地臺石과 결합되어 시설되었고, 형식으로는 평적식이 합장식이나 수직횡렬식에 비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⁸⁾.

본고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백제의 故土에서 발굴되어진 혼축기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제 혼축기단을 구조, 재료별로 분류해 보고 아울러 이것이 初築期의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補修를 통해 축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적에서 출토된 瓦當⁹⁾이나 土器 등을 통해 이들 混築基壇의 편년을 알아보고 이의 변천에 대해서도 개략적이나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그럼으로써 고구려나 신라의 건물유적에서 관찰하기 힘든 백제 기단 건축의 특성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6) 이는 삼국 중에서만 한정시킨 본 것으로 기존의 유적 사례 중에는 통일신라기의 합천 죽죽리 폐사지 금당지가 있다(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죽죽리폐사지, 1986).

7) 조원창, 백제 와적기단에 대한 일연구, 한국상고사학보 33, 2000.

8) 이외에 와적기단은 평적석과 수직횡렬식이 결합된 복합식 등이 있다(조원창, 백제 기단 축조술의 대신라전파, 건축역사연구 42,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9) 지금까지 백제의 암막새는 군수리 폐사지에서의 출토예로 보아 전형적인 것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막새를 주대상으로 하여 건물의 조성시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百濟 混築基壇의 事例

2-1. 塼土混築基壇

熊津期에 해당되는 공산성 내부의 臨流閣址(그림 1)에서 볼 수 있다¹⁰⁾. 다양한 기단 형식을 엿볼 수 있는 부여지역에서도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주지역만의 독특한 기단 형식으로 이해된다.



그림 1. 공산성 임류각지 평면도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산성, 1992)

임류각은 東城王과 관련된 누각 건물로 기단의 대부분이 석축으로 이루어 졌고 극히 일부에서 만 전토혼축기단이 검출되고 있다. 따라서 臨流閣이 백제 泗泚期까지 계속적으로 존립되었음을 파악해 볼 때¹¹⁾ 초축기의 기단은 塼土混築基壇이었고 보수용으로 사용된 기단이 석축기단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기

10) 그런데 임류각지의 경우 전토혼축기단 외에 합석의 석축기단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례가 발굴 과정에서 확실하게 조사되지 않아 동시기의 것인지 아니면 시기차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본포 양상으로 보아 석축기단이 전토혼축기단에 비해 폭넓게 시설되었고 아울러 임류각지에서 7세기 이후의 와당 형식이 검출되었음을 볼 때 석축기단이 후행하는 기단형식임을 추정할 수 있다.

11)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臨流閣址에서 출토된 단판 8엽 연화문 와당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단에 사용된 塼은 평면 방향으로 회색 및 붉은색을 띠고 있다. 塼은 한 변이 약 25cm이고 발굴조사 당시 약 3단 정도 확인되었다. 塼과 塼 사이에는 9cm 정도의 점토를 깔아 기단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그림 2). 그러나 그 간극이 너무 넓어 완전한 지사시설로는 부적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능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임류각의 기단은 泗泚期에 전토혼축기단에서 석축기단으로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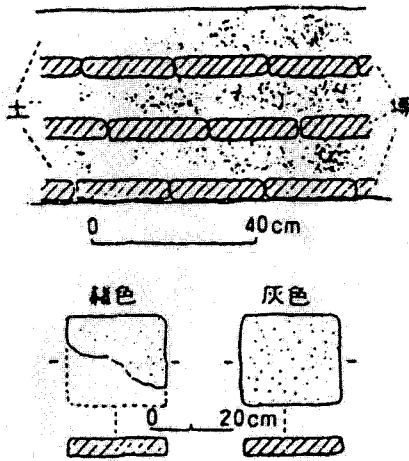


그림 2. 임류각지 혼축기단 및 정방형전 (이왕기, 백제의 건축양식과 기법, 백제문화 27, 1995)

2-2. 瓦積(平積式)+石築(割石 重層)混築基壇

부소산성 남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관북리 1건물지(그림 3, 사진 1)¹²⁾에서 볼 수 있다.

관북리 1건물지는 그 동안 사비시대 왕궁지로 추정되고 있는 관북리 백제유적 중의 하나이다. 동서 배수구와 남북 배수구가 직각을 이루며 접속하는 장소에 조성되었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길이 18.5m, 남북 길이 5.6m이며

12) 이 건물지는 보고서에서 건물지(a)로 기술하고 있다 (윤무병,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보고(II), 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높이는 35cm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기단 상면의 멸실이 심하여 초석이나 적심석의 형적을 찾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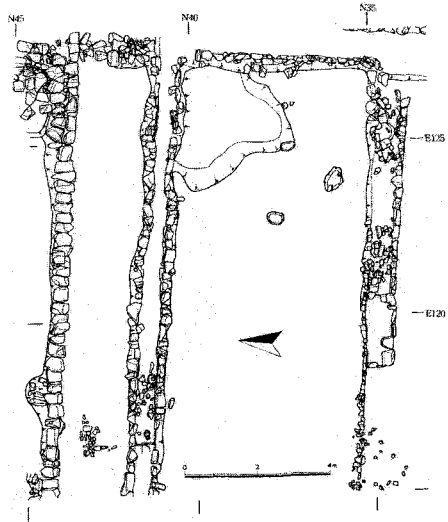


그림 3. 관북리 1건물지 평면도 (충남대학교박물관,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보고(II), 1999)



사진 1. 관북리 1건물지 혼축기단 (충남대학교박물관,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보고(II), 1999)

기단은 동일 지표면 상에 와적과 할석으로 혼축되었고 와적기단은 건물 정면인 남쪽과 서쪽 일부에서 확인된다. 기와편과 점토를 사용하여 평적식으로 축조하였으며 평면 瓦列은 1열이고 기와의 장축방향과 기단 방향이 일치

하고 있다. 석축기단은 割石의 허튼층쌓기로 조성되었으나 후대의 훼손으로 인해 많은 멸실이 살펴진다¹³⁾. 기단토에서의 토층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瓦積과 석축 기단은 동시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와적과 석축이 혼축된 최초의 백제시대 기단으로 파악되며, 석재 일변도에서 새로운 재료인 기와의 등장을 실현시킨 혼축기단의 하나로 생각된다.

한편, 錦城山 건물지의 경우는 二重基壇으로써 하층이 와적기단이고 상층은 석축기단이다(사진 2·3). 와적기단은 평적식으로 축조되었고 기와 이외에 埴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량이고 소편이어서 기단의 한 형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기단은 정지된 生土面 위에 2~3cm의 황갈색 점토를 깔고 開口部를 “L”자형으로 굴토한 후 瓦積하여 완성하였다¹⁵⁾.

기단의 외면은 瓦刀面이 있는 반듯한 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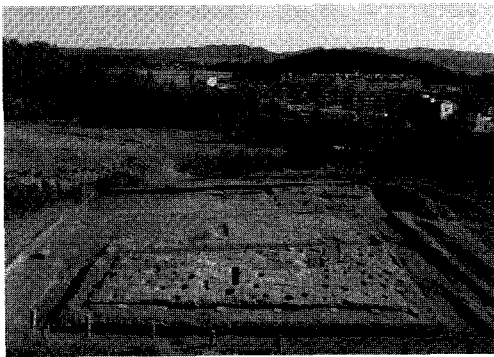


사진 2. 금성산 건물지 전경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금성산 백제와적기단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1992)

13) 이는 기단 내부에서 초석이나 적심시설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14) 조원장, 백제 건축기술의 대일전파, 서경, 2004.

15) 이러한 축조기법으로 말미암아 와적기단이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이 강한 기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掘土 방식은 부여 군수리 폐사지 및 부소산성 동문지 주변 건물지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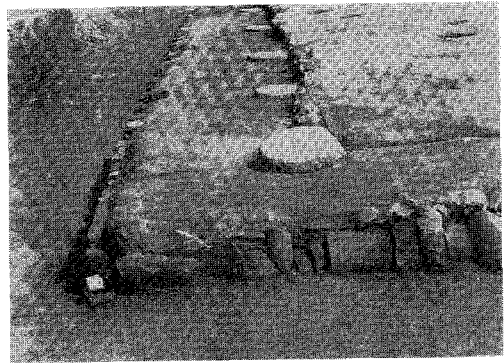


사진 3. 금성산 건물지 혼축기단 세부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금성산 백제와적기단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1992)

전면으로 하였고 상하 기와의 접착과 높이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와와 기와 사이에 점토를 충전하였다. 와적의 전면으로는 보강시설로 사용된 암·수키와가 배치되어 있다. 상층의 석축기단은 삭토 정도가 심해 소형의 雜石 일부만 확인되고 있다. 하층기단의 규모는 동서 길이 18.04m, 남북 길이 14.72m이며 기단 상면의 폭은 1.4m이다. 아울러 상층 기단의 규모는 동서 길이 15.3m, 남북 길이 12m이며 높이는 10cm 내외로 계측되었다. 후대의 경작과 침탈로 인해 대부분의 초석과 적심석은 멸실된 채 조사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형식의 혼축기단은 능사 강당지 동쪽기단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은 동쪽의 不明 건물지 I 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중앙부는 기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⁶⁾. 이 결실된 부분의 앞뒤에서 높이 5~10cm의 와적기단이 검출되고 있다. 도면이나 세부 사진이 게재되지 않아 확실한 와적기단의 형식은 살필 수 없으나 노출된 상태로 보아 평적식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결실된 기단

16) 기단은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기단토의 지사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필히 존재하여야 할 중요 부분이다. 만약 이것이 시설되지 않았다면 건물의 붕괴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명기된 석축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는 남아 있는 서·남·북쪽기단으로 보아 할석의 重層 기단으로 파악된다. 석축기법은 허튼층쌓기로 이루어졌다.

2-3. 瓦積(垂直橫列式)+石築(割石 重層)混築基壇

혼축기단은 부여 陵寺(그림 4)¹⁷⁾ 남회랑지의 남쪽기단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회랑지의 혼축기단은 중문지의 서쪽으로 약 3~7m 떨어진 지점 사이에서 검출되었다(사진 4). 혼축기단 주변 대부분이 流失되어



사진 4. 능사 남회랑지 혼축기단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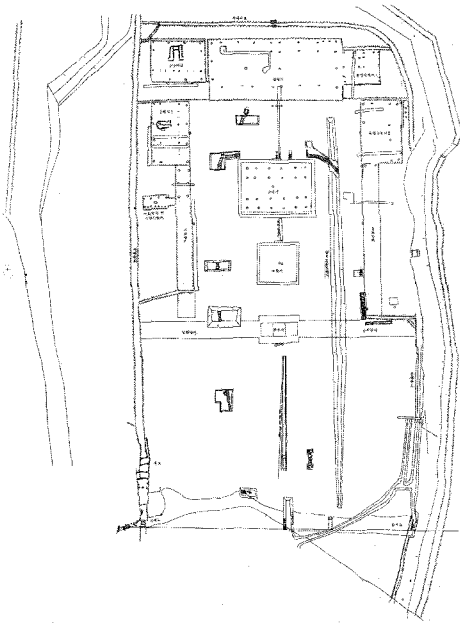


그림 4. 부여 능사 가람배치도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2000)

17) 능사는 목탑지의 사리감에 음각된 명문으로 보아 567년 창왕(위덕왕)의 누이동생인 매형공주가 아버지 성왕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능사의 가람배치는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에서 북으로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타 회랑지, 공방지 I·II, 부속시설, 목교, 석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중 목탑지와 금당지는 이중기단으로써 남아 있는 기단의 잔재로 보아 하층은 장대석의 治石基壇으로 판단되며, 상층은 가구기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건물들의 기단은 대부분 할석조의 석축기단으로 축조되어 있다.

정확한 기단의 범위는 파악하기 어렵다. 와적기단은 부여의 군수리 폐사지 및 군수리 제1호 건물지¹⁸⁾, 그리고 관북리 2건물지 등에서 검출되었던 수직횡렬식을 취하고 있다. 기단에 사용된 기와는 암·수기와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등면은 건물의 앞 쪽인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기와와 기와 사이의 간극이 넓어 지사시설로의 기능성은 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수직횡렬식 와적기단과 나란한 방향에서는 또한 소형의 할석으로 축조된 석축기단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단토가 유실되면서 석축기단의 대부분이 교란되어 기단석렬의 정확한 형상파악은 쉽지 않다.

이처럼 소형의 할석으로 축조된 석축기단은 능사내의 강당지, 공방지 I·II, 부속시설 건물지 등에서 고루 확인되고 있어 금당지 및 목탑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회랑에서의 중건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다른 여느 건물지에서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는 기단양식이라는 점에서 석축기단과 와적기단은 동시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

18) 이 건물지는 상·하층의 축조기법이 다른 복합식 와적기단을 취하고 있는데 상층이 평적식인 반면, 하층은 수직횡렬식을 이루고 있다.

19) 이러한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기단토의 유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되며, 그 시기는 창건기로 사료된다.

한편, 강당지는 할석재의 석축기단과 평적식의 와적기단으로 축조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단면에서 삭토 또는 보강과 같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와적과 석축이 동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게 한다. 전체적으로 석축기단이 기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와적기단은 강당지 西室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인 도면이나 사진이 없어 평면 瓦列은 살피기가 어렵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의 기단은 전술하였던 관북리 1건물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2-4. 瓦積(平積式)+石築(地臺石)混築基壇

백마강 서안의 왕흥사지 서회랑지에서 볼 수 있다.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사찰로 寺址 내에서 '왕흥'명의 고려시대 명문와가 검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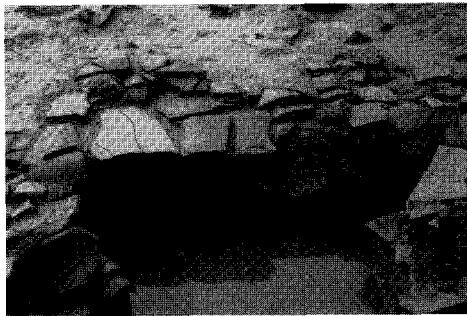


사진 5. 왕흥사지 서회랑지 혼축기단

기단은 하부에 지대석, 상부에 와적기단을 축조하였다(사진 5). 지대석은 괴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만 축조되었다. 이는 일종의 보강시설로 이해되며 지대석과 지대석의 간극은 점토로 메꾸어졌다. 지대석 상부의 와적기단은 평적식으로 축조되었고 평면 瓦列은 2~3열이다. 대부분 와편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원형의 평기와는 살필 수 없다. 『삼국사기』 기록 및 寺址에서 출토되는 와당 형식으로 보아 7세기 대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2-5. 塼積+石築(地臺石)混築基壇

보령 烏舍寺址²⁰⁾의 제 2차 강당지 및 동남 회랑지, 서남회랑지 등에서 석축기단(할석기단)과 함께 전적기단이 살피지고 있다(사진 6)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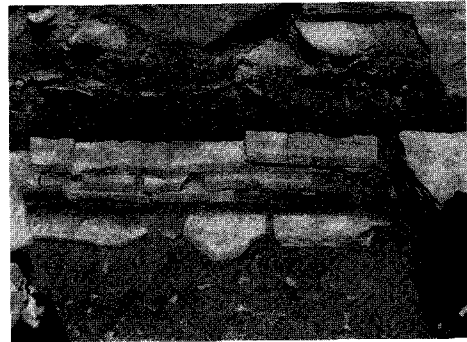


사진 6. 오합사지 혼축기단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장방형의 無文塼(그림 5)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최고 7단 정도 남아 있다. 塼 아래에는 일종의 地臺石²²⁾으로 보이는 1매의 판석(길이 50~70cm, 너비 30~40cm)이 깔려 있다²³⁾. 이러한 지대석의 존재는 와적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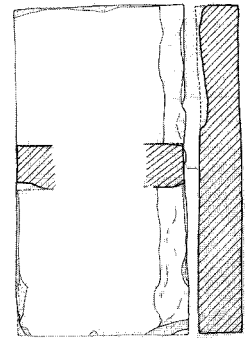


그림 5. 오합사지 출토 塼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20) 이는 통일신라기의 聖住寺址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달리 烏舍寺址로도 불린다. 본고에서는 오합사지로 통칭하여 사용코자 한다.

21) 이러한 축조 양상은 동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료의 부족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 자료로는 관북리 1건물지(석축+瓦積)를 들 수 있다.

22) 이는 일종의 “厝石”으로도 볼 수 있다.

23)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대석과 전적기단을 중복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지대석은 일종의 보강시설로써 평적식의 와적기단(왕흥사지 서회랑지, 능사 공방지 I 등)에서도 이미 조사된 바 있다.

에서도 살필 수 있는 것으로써 백제 기단 건축의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과 전 사이에는 공산성 임류각지의 전토 혼축기단에서와 같은 土築이 없으며 별도의 접착제와 같은 강회도 확인되지 않는다.

기단에 사용된 塼(그림 5)은 無文으로써 두께가 약 4.5cm이며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경질에 가깝게 소성된 것과 회색연질로 소성된 것 두 가지가 있다. 길이 34cm, 너비 17cm로 길이 : 너비의 비율이 2:1이다.

전적기단과 석축기단이 동일 기단렬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 시기의 기단으로 파악되며 서로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造寺工의 分業 행위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후대에 일부분만 보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 축조로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2-6. 瓦積(平積式, 垂直橫列式)+石築(割石)混築

부소산성 남서 아래쪽의 관북리 2건물지에 서 볼 수 있다. 이 건물지는 2005년도에 발굴 조사된 것으로써 동서 길이 35m, 남북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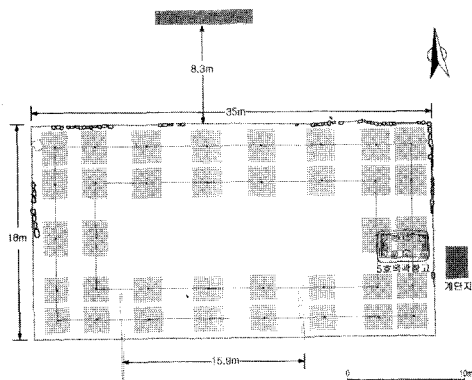


그림 6. 관북리 2건물지 평면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관북리백제유적(제11차)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자료)

18m의 대형 건물지이다. 전면 7칸, 측면 4칸으로 중심부가 통칸으로 되어 있다(그림 6).

건물지 내부의 기단토는 마사토와 점토를 반복 성토한 판축토로 이루어 졌다. 혼축기단은 동쪽에서 확인되는데 상하 두 부분으로 상층은 석축 및 평적식의 와적기단, 하층은 수직횡렬식 와적기단 및 소형의 석축으로 이루어 졌다(사진 7·8). 특히 상부에 시설된 석축기단은 판석재의 활석을 이용하여 수직횡렬식으로 축조하였고²⁴⁾, 하층은 소형 석재를 이용하여 2~3중으로 겹쳐 쌓았다. 한편, 와적기단의 경우도 상·하층 모두에서 살필 수 있는데 평적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직횡렬식은 하층 일부에서 관찰된다²⁵⁾. 이처럼 한 건물지의



사진 7. 관북리 2건물지 혼축기단 1



사진 8. 관북리 2건물지 혼축기단 2

24) 2004년도 관북리지역 및 2005년도 가탑리지역 건물지에서 조사되었다. 석재를 얹혀 반복 築石하지 않고 세워 1열로 시설하였다는 점에서 여느 기단과 큰 차이가 있다.

25) 이 형식의 기단은 건물 남쪽기단 일부에서 관찰되며 상부에는 석재를 수직해 놓았다. 이는 석축기단의 보강시설로 사용된 것으로써 석축기단에 비해 얼마 정도 앞으로 내어 축조하고 있다. 기단을 축조하기 위해 기단토는 “L”자형으로 커팅되고 잘려진 면에 맞춰 암키와를 1렬로 세워놓았다. 그리고 기단 외곽으로는 밀려남을 방

기단에서 여러 형식의 기단 축조기법이 파악되는 것은 장인들에 의한 작업 분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의 분업화는 신라의 경주 羅井²⁶⁾에서도 살펴지고 있어 삼국기의 건물 축조 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2-7. 瓦積(평적식)+石築(地臺石, 割石重層) 混築基壇

능사 3건물지(일명 工房址)에서 볼 수 있다(사진 9). 이 건물지는 남북 길이 15.72m, 동서 길이 5.16m로 中央室, 南室, 北室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 안쪽으로 50cm 지점에는 퇴칸 초석이 위치해 있고 본체는 기단에서 248cm 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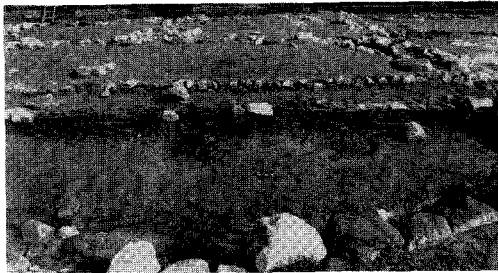


사진 9. 능사 3건물지 혼축기단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1998)

와적기단은 평적식으로 동쪽기단의 본체 남실과 북실 입구, 회랑으로 통하는 남쪽기단 및 서쪽기단 확장부에서 살필 수 있다. 일부 와적기단의 경우 하부에는 12~20cm 정도의 할석을 1열로 깔 지대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혼축기단은 전술하였던 왕흥사지 서회

지하기 위해 퇴적토를 쌓아 구지표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 축조되었을 당시에는 이러한 수직형렬식 와적기단의 경우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관찰이 불가능하였다.

26)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나정, 현장설명회자료 04-5, 2004 ; 조원창, 백제 기단축조술의 대신라 전파, 건축역사연구 42, 2005.

랑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와적은 최대 8단까지 관찰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다. 평면 와적은 1~3열 정도로 파악되며 남쪽기단의 경우 길이방향으로 와적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와적기단 보다 선행하는 석축기단의 경우는 소형 할석을 층층으로 쌓아 완성하였는데 4~5단 정도 남아 있다. 모두 허튼층쌓기로 이루어졌으며 동쪽기단은 기단토의 토압에 밀려 기단석이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와적과 석축의 정형성은 살피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형식의 혼축기단은 동회랑지 북쪽의 불명건물지 II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사진 10). 기단의 사방에는 할석을 이용한 석축기단이 조성되어 있고 동쪽기단 일부에서는 와적기단이 검출되고 있다. 석축은 양호한 부분의 경우 약 40~45cm 정도 남아 있고 와적기단은 동쪽 배수로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 와적은 평적식으로 보이나 평면 瓦列는 살필 수 없다.



사진 10. 능사 불명건물지 II 혼축기단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1998)

축조상의 시기차가 확인되는 혼축기단은 다분히 석축기단을 먼저 조영하고 이의 보수차원에서 와적기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축조기법은 일본에서도 어

렵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3. 百濟 混築基壇의 考古學的 檢討

이상에서와 같이 그 동안 백제의 고도에서 발굴조사된 혼축기단은 그 예가 많지 않다. 재료상으로 보면 석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와, 전 등이다. 아울러 이들 혼축기단이 사용된 건물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사원, 추정 왕궁, 특수 건물, 누각 등 그 소유층이 특권층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건물이 모두 지붕에 기와를 사용한 瓦建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와가 삼국시대 특권층의 전유물²⁷⁾이었다는 점에서 전술한 건물의 성격과도 일명 상통한다. 그리고 그 사용시기 또한 웅진기부터 사비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어 석축기단 형식에 비해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사내용은 백제의 혼축기단이 사원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의 전유물에 주로 활용되었음을 판단케 한다.

둘째로 혼축기단에 사용된 와적기단의 형식이다. 지금까지 혼축기단에 와적기단이 사용된 예는 관북리 건물지 1, 2를 비롯해 능사 3건물지·강당지·불명건물지 II, 왕흥사지 서회랑지, 금성산 건물지 등이다. 이들 중 수직횡렬

식 와적기단이 사용된 관북리 건물지 2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지는 모두 평적식으로 시설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와적기단의 기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그 만큼 평적식이 수직횡렬식에 비해 지사시설의 기능이 효율적이었음을 판단케 한다. 그리고 능사, 왕흥사지의 경우는 와적기단 하부에 1열의 지대석을 놓고 있어 관북리 건물지 1, 2 및 금성산 건물지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대석은 일종의 보강시설로 이해되며 가까운 신라²⁸⁾나 일본²⁹⁾에서도 살필 수 있다.

셋째, 관북리 1건물지나 왕흥사지 서회랑지, 능사 강당지·남회랑지, 금성산 건물지, 오합사지 강당지 등에서와 같이 혼축기단을 구성하는 기단 각각의 재료가 동시기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혼축기단에서 주는 대부분 석축기단이 해당되고 있으며, 從은 와적기단이 차지하고 있다. 와적기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평적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능사 3건물지(공방지 I)에서와 같이 와적기단이 후대에 보수용으로 사용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증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출토 유물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와적기단이나 전적기단³⁰⁾에 사용되는 하부 지대석의 경우는 대부분 판석이나 할석 등을 사용하는데 모두 1단 높이로 축조되었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비

27) 高句麗의 경우 『舊唐書』에 "...주거는 반드시 산 골짜기에 있으며, 대개 모초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짓고, 오직 불사·신묘·왕궁·관부만이 기와를 쓴다...(居所居必依山谷皆以茅草葺舍惟佛寺神廟及王宮官府乃用瓦)"라고 기록되어 있다(『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 列傳第一百九十九上 東夷 高麗條). 이는 『新唐書』의 기록과도 합치된다(『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高麗條). 이렇게 볼 때 일반 서민 계층은 그 거주지가 王城과 떨어진 외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주거양식 또한 온돌이 시설된 수혈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왕궁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건물은 지붕에 기와를 사용하여 피계층의 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이지만 문화교섭이 삼국간에 긴밀하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백제나 신라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2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인왕동 556·566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3.

29) 백봉시대에 증건된 穴太廢寺 중건금당지를 비롯한 北白川廢寺 탑지, 當麻寺 본당 지하건물지, 高麗寺 금당지, 南滋賀廢寺 탑·중금당·서금당지, 崇福寺 미륵당지, 平川廢寺 탑지, 上浣廢寺 금당지, 大寺廢寺 금당·강당지 등에서 살필 수 있다.

30) 전적기단도 와적기단과 마찬가지로 塼을 垂積하는 경우와 平蹟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백제의 군수리 폐사지 목탑지에서 살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백제 오합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숫하게 나타나고 있어 백제기단 건축의 전파성을 판단케 한다³¹⁾. 이러한 지대석은 전술하였던 것처럼 일종의 보강시설 및 미석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사례로 볼 때 외편을 이용한 외적기단의 경우 판석보다는 할석의 예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적기단의 경우는 판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적기단이 외적기단과는 달리 완형의 장방형 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의 파손을 염려한 조치로 판석조의 지대석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혼축기단의 재료 및 축조방법을 통해 작업 공간의 분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장 쉽게 살필 수 있는 유구가 관북리 2 건물지이다. 이 건물지의 기단은 대부분 멸실되어 남쪽 일부에서 만 그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즉, 기단은 외적기단과 석축기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적기단의 경우는 평적식과 수직형렬식, 석축기단은 수직형렬식 및 평적식 등이 공반되어 있다. 이는 재료의 이질성 뿐만 아니라 축조기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에 의한 일괄 축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장인들이 어느 한 부분을 배정받고 그 부분을 축조함에 있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단 축조술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토목사업에서의 공간 분할은 고분³²⁾, 건물지³³⁾, 성곽³⁴⁾

31) 조원창, 백제 외적기단에 대한 일연구, 한국상고사학보 33, 2000.

일본의 경우 近江國衛, 田辺廢寺 서탑지 등에서와 같이 지대석 대신 누층의 압·수기외를 사용하는 예도 있다. 이와 유사한 기단 사례는 최근 청주 북대동 건물지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한국전사문화연구원, 청주 북대동 금호 어울림아파트 부지내 유적 추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 북대동 건물지는 평적식 외적기단으로 축조되었으며, 출토된 토기로 보아 백제 멸망 이후인 통일신라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曹永鉉의 경우 신라나 가야의 대형 封土墳에 대해 석제(기준석)를 중심으로 봉토 작업을 분할 실시한 것으

등의 발굴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좋은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

여섯째, 혼축기단에 사용된 석축기단은 할석을 이용한 허튼층쌓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치석기단이나 이중의 가구기단 등에서는 이러한 혼축기단이 조사된 바 없다. 할석의 허튼층쌓기가 가미된 혼축기단은 관북리 1건물지를 비롯해 금성산 건물지 상층, 오합사지, 능사 건물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 사비기 전 시기에 걸쳐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와나 전을 재사용한 혼축기단이 치석기단이나 이중의 가구기단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주로 허튼층쌓기의 할석기단에서 많이 검출되는 사실은 기단의 안정성 정도와 당대에 유행하였던 건축기술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6세기 중엽 경에 조성된 능사 건물의 경우는 금당지와 목탑지가 이중의 가구기단인 반면, 제 3건물지는 할석과 기와가 혼합된 혼축기단이었다. 금당지와 목탑지의 상층기단은 모두 멸실되어 하층기단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장대석의 치석기단으로 조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보수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제 3건물지의 경우는 초기에 허튼층쌓기의 할석기단이었으나 이것이 어느 시기에 부분적으로(기단의 동남 모서리부)붕괴되면서 평적식 외적기단으로 보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3건물지 맞은 편에 위치한 동회랑

로 보았다(조영현, 한일붕토분의 축성방식에 관한 연구 -구획축조요소를 중심으로-, 福岡大學 박사학위논문, 2002).

33) 신라 羅井의 8각 기단에서 엿볼 수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 나정, 현장설명회자료 04-5, 2004 ; 조원창, 백제 기단축조술의 대신라 전파, 건축역사연구 42,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34) 조선시대에 해당되지만 서산 海美邑城의 경우 축성주체를 성돌에 음각하여 그 작업이 분할되었음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노동력이 중시된 삼국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단 건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적 사례의 비교 검토는 결과적으로 장대석의 치석기단이나 가구기단이 허튼층쌓기의 활석기단에 비해 기단토의 止沙施設 면에서 튼튼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기단의 안정성은 반대급부적으로 그 만큼 기단 보수에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금성산 건물지나 능사 목탑지·금당지의 경우 기단토 자체가 생토면이나 판축토였기 때문에 기단석에 크게 무리를 가하지 않은 점도 기단의 보수를 하지 않은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당연히 補修 목적의 와적기단이나 전적기단을 살피기가 어렵다.

한편, 관북리 1건물지나 금성산 건물지, 오합사지 등이 축조될 무렵인 6세기 4/4~7세기 1/4분기 이후에는 5세기 이후 꾸준히 등장하였던 혼축기단이 이제 백제 기단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기단토가 판축토인 관북리 1건물지나 기단토가 생토면인 금성산 건물지에서도 자연스럽게 혼축기단이 사용되었다.

일곱째, 와적기단의 지대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모두 활석재이고 상면은 다듬어 편평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겹으로만 쌓고 있어 그 위에 놓여진 累積의 와적기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대석이 놓여진 와적기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평적식에서 만 확인된다는 공통성이 있다. 또한 지대석의 놓이는 방향을 기단방향과 나란하게 하여 그 위에 놓이는 와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의 혼축기단은 왕홍사지 서회랑지 및 능사 3건물지(공방지 I)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여덟째, 금성산 건물지에서와 같이 이중기단에서도 혼축기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기단은 그 동안 정림사지 금당지, 능사 금당지, 부소산페사지 금당지, 미륵사지 금당지

등의 사례로 보아 대체로 權威的인 건물에 축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³⁵⁾. 그리고 이중기단의 재료가 대체로 활석이 아닌 장대석으로 축조된 점도 전술한 유적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와적기단이나 석축기단의 어느 한 쪽이 후대의 보수를 위해 축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이중기단에 서로 다른 두 재료를 이용하여 동시에 축조한 사실은 와적기단의 장식성과 석축기단의 기능성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百濟 混築基壇의 時期的 變遷

여기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문헌이나 그 동안의 연구 성과, 또는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이나 토기 등을 중심으로 하여 건물지의 편년을 검토해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백제 혼축기단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검토해 볼 때 가장 일찍이 등장하였던 백제의 혼축기단은 바로 임류각지의 전토혼축기단이다. 주지하듯 임류각은 백제 23대 왕인 동성왕과 관련된 유적이다. 이에 대해선 영성하지만 『삼국사기』에 그 편년이 전해지고 있다³⁶⁾. 기단 자체도 전과 토를 교대로 쌓고 있어 일반적인 건물유적의 기단시설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전과 전사이의 간극이 넓고 그 사이에 점토로만 충전되어 있어 기단토의 지사시설로는 적합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상의 한계는 전토혼축기단이 웅진기에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비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기단이 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5) 조원창, 백제 이중기단 축조술의 일본 비조사 전과, 백제연구 35, 2002.

36)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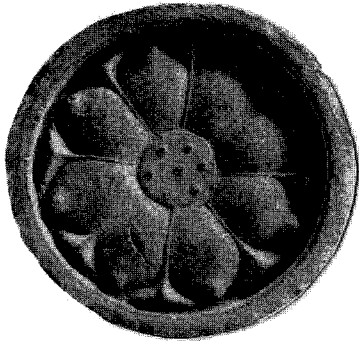


사진 11. 대통사지 출토 와당
(백제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



사진 12. “大通”명 인각와
(백제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

웅진기의 사비경영은 용정리폐사지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말~6세기 초로 추정되며, 성왕대에 이르러서는 본격화됨을 볼 수 있다³⁷⁾. 이러한 추정은 부소산성, 관북리 및 구아리, 동남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대통사지계의 와당(사진 11)³⁸⁾과 “大通”명 인각와(사진 12)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관북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왕궁지로 추정되고 있으

37) 조원창, 기와로 본 백제 웅진기의 사비경영, 선사와 고대, 2005.

38) 단판 8엽 연화문 와당으로써 자방에 비해 연판이 크고 길다. 자방 내에는 1+6과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자방 및 연판에서는 장식화나 형식화는 살피지 않는 다.

며³⁹⁾ 여기서 관찰되는 혼축기단 또한 시기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어 좋은 비교자료가 되고 있다.

관북리에서 관찰되는 혼축기단은 사비천도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1을 비롯해 7세기대 이후에 조성된 관북리 2를 들 수 있다.

관북리 1 건물지의 혼축기단은 동일 레벨상의 할석재 석축과 편으로 된 와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적기단의 경우 평적식에 평면 와열 1열이다. 그리고 기단 방향과 나란하게 와적을 횡적하여 고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적식의 와적기단은 웅진기의 임류각지에서 확인된 전도혼축기단과 축조기법이 아주 유사하여 시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견상의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수용이 아닌 동시기의 석축+와적기단으로써 기와가 기단에 사용되는 백제 최초의 기단 형식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세기 4/4분기 이후에 등장하는 2~3열의 평면 와열, 정형성이 없는 와적 등과 비교해 고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웅진기인 임류각지의 전도혼축기단과 비교해 동일 축조기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6세기 2/4분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관북리 2 건물지는 기단토 외곽의 구지표면 아래에서 출토된 와당(사진 13)으로 보아 축조 연대는 7세기대 이후로 추정되었다. 출토 와당은 크게 두 종류로 자방 및 연화문 등에서 특

39) 왕궁지의 추정은 남북대로 및 동서소로의 축조, 남북대로 북단에 유적이 위치한 점, 유적의 주변으로 조경용의 방형 연지 및 누각 등이 도로의 방향과 축을 이루면서 배치된 점 등에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윤무병,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보고(II), 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필자도 이의 견지를 따르는 바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곳에서 대형의 건물지 및 다수의 목곽·석곽고, 불상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그리고 웅진기에 해당되는 와당 등이 검출되어 왕궁지 뿐만 아니라 웅진기의 사비경영과 밀접한 곳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을 보이고 있다⁴⁰⁾. 이러한 와류는 7세기 이후의 백제 건물유적으로 알려진 부소산 폐사지 및 동남리유적, 익산의 미륵사지 등에서도



사진 13. 관북리 2 건물지 출토 와당

출토된 바 있어 시기 편년의 좋은 비교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6세기 4/4분기에 이르면 금성산 건물지⁴¹⁾에서와 같이 瓦積과 석축이 결합된 이중기단에서의 혼축기단이 등장하게 된다. 발굴조사 당시 상층의 멸실로 인해 기단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남아 있는 雜石列로 보아 상층기단은 석축기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이중기단 중에서 상층기단의 경우가 와적기단이나 전적기단으로 축조된 예가 한 곳도 없다는 데에서도 판단이 가능하다.

이 건물지에서 출토된 와당은 자방에 비해

40) 자방 외곽 및 연판내에서 평면화 및 장식화가 관찰되는 와당들이다. 자방 외곽에는 3열의 연주문대가 장식되어 있고 자방 내부에도 3열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연판 내에는 연꽃의 수술로 보이는 “1”자형의 양각대와 평면화된 瓣端 중심부에서는 세장형의 삼각돌기가 장식되어 있다.

41) 금성산 건물지를 6세기 4/4분기로 보는 근거로는 몸체에 하트형 구멍이 있는 장고형 기대편(그림 7)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부여 염창리와 신리, 능산리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신광섭·김종만, 부여 금성산 와적기단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1992).



사진 14. 금성산 건물지 출토 삼각돌기식 와당
(백제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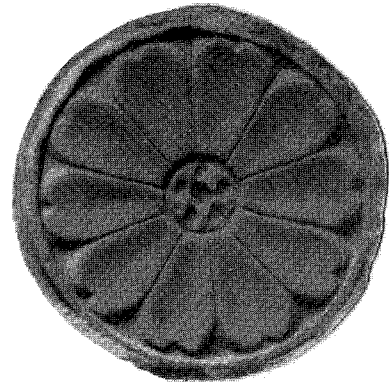


사진 15. 飛鳥寺 출토 삼각돌기식 와당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등원경과경, 1991)

연판이 긴 단판 8엽으로써 연판의 판단부에 삼각돌기가 장식되어 있다(사진 14)⁴²⁾. 이러한 자방과 연판의 크기 비를 보이는 와당은 588년 백제의 와박사가 일본으로 파견되어 飛鳥寺 창건와(사진 15)로 제작한 와당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飛鳥寺 창건와와 비교

42) 이러한 형식의 와당은 관북리 추정왕궁지, 부소산, 쌍북리유적 등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기타 長鼓形 器臺의 하트형 透孔을 통해서도 이 건물지가 6세기 말경이라는 편년을 유추한 바 있다(신광섭·김종만, 부여 금성산 와적기단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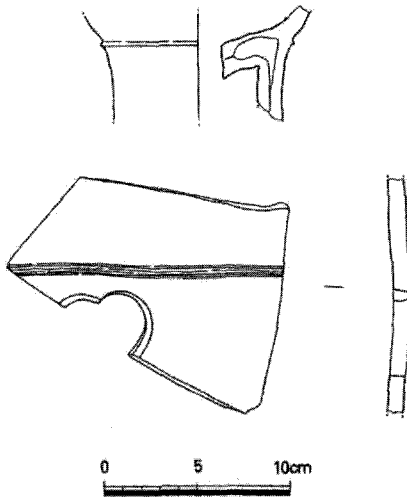


그림 7. 금성산 건물지 출토 장고형기대편
(신광섭·김종만, 부여 금성산 와적기단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1992)

검토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와당은 늦어도 588년 이전에 백제 장인들에 의해 백제 땅에서 제작되었음을 알게 한다.

한편, 7세기대 및 그 전후시기에 이르면 와적과 1열의 활석재가 지대석으로 사용된 혼축기단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기단은 능사 3건물지(공방지 I)⁴³⁾ 및 왕흥사지 서회랑지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왕흥사지가 7세기대에 준공된 사찰이라는 점은 『삼국사기』 이외에 이곳에서 출토된 와당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왕흥사지 출토 와당(사진 16)은 단판 8엽으로써 주연에는 연주문대가 장식되어 있고 판단 중심부에는 삼각돌기가 양각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은 귀목처럼 볼록 튀어나와 백제의 다른 유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주연부의 연주문대는 규암면

43) 능사 공방지 I에서는 금동대향로를 비롯한 와당, 누금제품, 풍경, 투조장식, 은장식 등 다양한 금속유물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상에서 와당과 관련된 사진이나 도면을 실고 있지 않아 출토된 와당 형식은 파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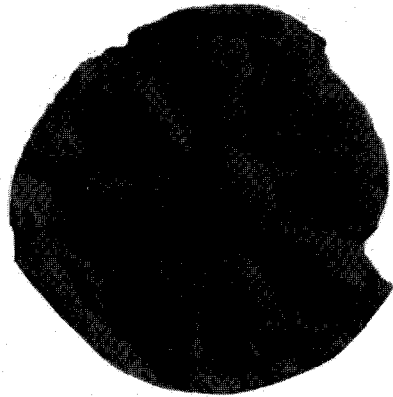


사진 16. 왕흥사지 출토 삼각돌기식 와당
(백제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

外里寺址의 塼(사진 17)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써 6세기 대의 瓦塼에서는 살필 수 없는 7세기 대 이후의 독특한 문양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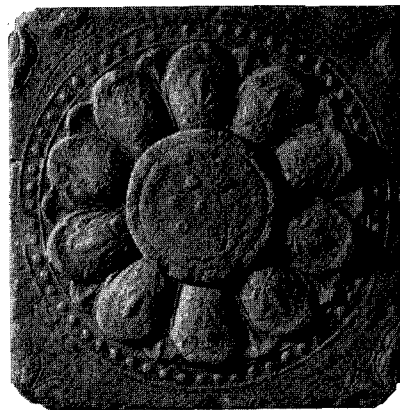


사진 17. 외리사지 출토 문양전
(백제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

이 외에 7세기 대에는 오합사지에서와 같이 塼積과 1열의 석재가 깔린 혼축기단이 확인되고 있다. 전술한 능사 3건물지 및 왕흥사지 서회랑지와 비교해 재료상의 차이만 발견될 뿐 구조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출토된 와당은 판단부에 삼각돌기를 장식한

단편 8엽이 주류를 이루나 연꽃의 주변으로 圈線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6세기 대의 와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사진 18). 이러한 형식의 와당은 오합사지 외의 다른 백제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없어 오합사지만의 독특한 와당 형식임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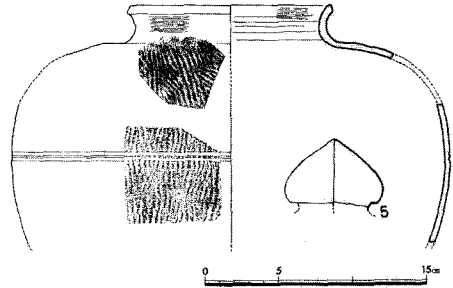


그림 8. 烏舍寺址 출토 백제 土器壺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사진 18. 烏舍寺址 출토 와당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출토되었기 때문에 백제 오합사와 관련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토기는 고온으로 소성된 회청색 경질로 구연부 및 동체부가 남아 있다. 동체 내면에는 물손질로 인해 물레자국이 지워져 있으며 기심은 자색에 가깝다. 구연부의 처리 및 동체부의 타날문으로 보아 백제 사비기의 토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을 보수용이 아닌 초축기의 혼축기단을 중심으로 유적 사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한편, 평행타날문이 시문된 短頸壺(그림 8)의 경우도 층위상으로는 남회랑의 최하층에서

표 1. 혼축기단의 유적과 편년

구 분	5세기	6세기	7세기	비 고
塼+土	■			임류각지
瓦積(平積式 혹은 垂直橫列式)+ 石築(割石 重層, 橫積)		■	■	관북리 1건물지 능사 남회랑지 금성산 건물지
瓦積(平積式)+ 石築(割石 單層<地臺石>, 橫積)		■	■	왕흥사지 서회랑지
瓦積(平積式+垂直橫列式)+ 石築(割石 單層, 垂積)			■	관북리 2건물지
塼積(平積式)+ 石築(割石 重層, 橫積)			■	오합사지 제 2차 강당지 및 동남회랑지·서남회 랑지 등

5.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백제의 故土에서 발굴되어진 혼축기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축기단”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서로 다른 재료 즉, 기와나 전을 할석과 혼용하여 건물유적의 기단을 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축조술은 그동안 고구려나 신라의 건물유적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어 백제 고유의 기단축조술 내지는 백제 장인의 기술력과 창의성의 산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혼축기단은 최근까지도 부여의 백제 건물유적에서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사비기에 이르면 기단의 한 형식으로 자리잡았음을 판단케 한다.

혼축에 있어 주재료는 석재이며, 이의 경우 할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와나 전 등이 부재료로 사용되어 기단을 완성하고 있다. 특히 기와의 경우는 와적기단으로 축조되어 백제 專有의 기단 축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폐기와와 재활용이나 장식적인 미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석재 이외의 기와나 전 등 주변에서 얻기 쉬운 다양한 재료들을 기단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재료 수급의 용이성을 살필 수 있다.

물론 혼축기단이 사용되던 시기에도 단독의 와적기단(부여 군수리 폐사지)이나 할석기단(부여 관북리 및 군수리유적), 그리고 가구기단(능사 목탑지 및 금당지, 금강사지 금당지 등) 등이 백제 사비기에 유행하고 있었다. 유적의 조사 예를 비교해 보더라도 혼축기단 보다는 단독기단이 숫자적으로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구려나 신라에서 보기 힘든 혼축기단이 단독기단에 비교될 정도로 백제에서 조성되었다는 점은 백제 기단 건축의 한 특성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

된다.

백제에 반해 고구려나 신라에서 이러한 혼축기단이 유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할석기단과 혼축될 수 있는 와적기단이나 전적기단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비교적 발굴 자료가 풍부한 신라의 황룡사지, 분황사지, 흥륜사지 등을 비롯한 개별 건물지의 발굴조사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필 수 있다.

백제와 같은 신라에서의 혼축기단은 통일신라기에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유적 사례는 경주 인왕동 건물지 및 천관사지 1건물지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들 혼축기단은 할석과 와적(수직횡렬식 및 사적식)을 결합하여 기단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와적은 초창기에 사용된 것이 아닌 보수용으로 축조되었다.

아울러 고구려의 경우도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정릉사지, 청암리 폐사지, 토성리 폐사지, 대성산성내 건물지, 안학궁지 등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신라와 마찬가지로 와적이나 전적기단이 없는 할석기단 만이 확인되었다. 물론 정릉사지 내에서 원형의 전적 유구 1기가 검출되긴 하였으나 건물유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백제와의 차이가 있다.

향후 백제 혼축기단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것이 보수용인지 아니면 초축기의 것인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아울러 이러한 기단이 조성되게 되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기술적 배경도 향후의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백제의 造寺工 혹은 건축 장인집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시백제 사회의 건축체계를 이해하는데 밀바탕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 혼축기단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조사에서의 중요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같은 분야이면서 이

방인으로 간주되는 고건축 전공자들의 도움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삼국사기
2. 구당서
3. 신당서
4. 김동현,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88
5. 조원창, 기와로 본 백제 웅진기의 사비 경영, 선사와 고대, 2005
6. 조원창, 백제 기단 축조술의 대신라 전파, 건축역사연구 42,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7. 조원창, 백제 건축기술의 대일전파, 서경, 2004
8. 조원창, 백제 이층기단 축조술의 일본 비조사 전파, 백제연구 35, 2002
9. 조원창, 백제 와적기단에 대한 일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000
10. 신광섭·김종만, 부여 금성산 와적기단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1992
11. 안승주, 공산성, 공주사범대학 백제문화연구소, 1982
12. 윤무병,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보고(Ⅱ), 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13. 공주대학교박물관, 대통사지, 2000
1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인왕동 55·566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3
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밤골사지, 연보, 2004
16.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2000
17.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와전, 1989
18.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죽죽리폐사지, 1986
19. 백제문화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
20.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 나정, 현장설명회자료 04-5, 2004
21.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22. 鄒厚本, 최근 남조 고고의 신수확, 고대동아세아 문물교류의 축, 2002
23. 채희국,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4
24. 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2호, 1981
25. 남일룡,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호, 1987

A Study on Mixed Construction of Platform of Baikje

Cho, Weon-Chang

(Giho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Abstract

“Mixed construction of platform” means the platform which was constructed by mixing heterogeneous materials such as roof tiles or bricks with divided stone of trimmed stone. This kind of construction technique was not known or found from the building sites of Goguryo or Silla so far and therefore it used to be understood as a unique platform construction technique or the product of technology and creativeness of Baikje’s craftsman.

The mixed construction of platform of Baikje came to position itself as one of the patterns of platform mainly used over Sabi period and we found the pattern from the sites including Imryugak site in Gongju, temple for royal tomb in Gwanbuk-ri, Wangheungsa Temple site, building site in Keumseong Mountain, Ohapsa Temple site in Byryeong. From the fact that they used a variety of materials which they could easily get around them such as roof tiles or bricks in addition to stones for the construction of platforms, we can see the feasibility and decoration characteristics of their material supply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this mixed construction of platform was not popular in Goguryo and Silla, the major reason for which is judged to be non-existence of platforms to construct using bricks or roof tiles which could be constructed together with platform using divided stones. This i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excavation of Hwangryongsa Temple site, Bunhwangsa Temple site, Heungryunsa Temple site of Silla which gave us comparatively abundant excavation data, and Jeongreungsa Temple site, Cheongamsa Temple site, Toseongrisa Temple site and building site in Daeseong Mountain castle and Anhak Palace site of Goguryo.

For further progressive study on the mixed construction of platform of Baikje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review more on the social background and technical background with the linkage with archeology and architecture at that time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such platform.

Keywords : Mixed construction of platform,